

장우석 개인전 'STEAL CUT - 진실의 탐닉'

27일~7월 10일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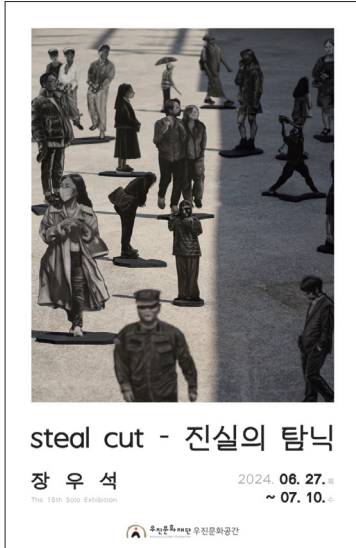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장우석 15회 개인전 'STEAL CUT- 진실의 탐닉'이 열린다.

작가에 따르면 전주에서 한국화를 기반으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의 큰 주제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진실을 바라보는데 있다. 2007년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주제로 작업을 하며 인간의 욕망에 관한 진실을 탐구했으며,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 바라보기 시작했다.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며 시대정신을 담은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2018년부터 사회적 이슈나 사건 등을 수집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일본 군 위안부 할머니들, 홍콩 우산 혁명 등 절규하듯 울부짖는 자들의 모습을 담으며 그들의 형상을 클로즈업 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또한 작업방식을 변화해 기존의 제작방식인 프레임에 제거하고 합판에 형상을 커팅해 잡지를 접합하는 전통초상기법을 가져와 인물의 세세함을 표현했다. 이후 2023년부터 다양한 인간 군상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스틸컷 시리즈 '진실의 탐닉'은 작가의 시선으로 마주한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을 통해 우리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작업으로 연계하고자 한 시리즈로, 사회현상 속에 진실이라는 명목 아래 인간의 존엄은 온데간데없이 파헤치는 미디어를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리즈다.

매체를 통해 추출해 낸 이미지를 가져와 확대하거나 생략하는 등 이슈나 사건에 대해 답답하게 담아내고자 했다.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군상들 사이로 음향을 설치해 백색소음과 사건의 이야기를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데 거친 노이즈 사이로 귀를 기울여야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군상들과 접촉할 때 그 사건을 유추하게 하며, 시대에 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을 담고자 했다.

한편 작가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



steal cut - 진실의 탐닉

장우석 2024. 06. 27. ~ 07. 10.

장우석 'STEAL CUT - 진실의 탐닉' 포스터

한 후, 같은 학교에서 석·박사과정을 이수했다. /장은성 기자



소리문화금고 개관식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25일 '소리문화금고'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관식은 정현을 익산시장, 최중우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인화동 주민, 구시장 및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지 비건 가죽 친환경 원단 개발 탄력

한국전통문화재단, 'R&D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도영)은 '2024 R&D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천 양피엔비(주) 한지흠패널 △고감한지엔페이퍼의 한지수채화 전용패드 △(주)비꽃 조각 우산 포장디자인 시제품 △소진영 스튜디오 '한지응용 오브제' 등을 개발 및 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윤리적 소비를 위한 비건패션에 활용될 한지비건 가죽 친환경 원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전담의 한지산업지원센터는 고감한지엔페이퍼와 생분해성 코팅제를 사용, 가공 공법에 따라 내구성과 오염에 강하고, 고급스러운 촉

감을 가진 한지가죽원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규모 5천만원, 도비 5천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전통한지를 융복합해 한지 분야의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실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또한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자산인 한지를 산업화하기 위해 전담이 한지업체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담과 한지 관련 업체와의 꾸준한 연구협력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전담은 한지를 통해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실행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석정문학관, 생애사 글쓰기 참여자 모집

(재)부안군문화재단 석정문학관은 오는 11월 까지 5개월 간 군민을 대상으로 상주작가 문예 프로그램 생애사 글쓰기 나의 삶, 한 권의 책 시즌 2'를 진행한다. 모집기간은 7월 2일까지로 모집인원은 20명이다.

'나의 삶, 한 권의 책 시즌2'는 석정문학관 이해인 상주작가와 함께 각자 살아온 삶을 반추하는 생애사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와 같이 참여자들의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소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영상 자서전을 제작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해인 작가(필명 이

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전국 온라인 매칭 박람회를 통해 지원한 5명의 작가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해인 작가는 2019년 '제3의 문학'을 통해 등단, 2022년 시집 '복숭아 판나코타 식 사랑 고백'을 펴냈으며 문학프로그램 운영 등 다수의 경험과 기획력을 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학작가가 지역문화관에 상주해 안정적 창작 여건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학으로 소통하고 누릴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사업이다. (재)부안군문화재단 석정문학관은 올해로 3년 연속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부안=김성진 기자



석정문학관 생애사 글쓰기 나의 삶, 한 권의 책 시즌2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식물세밀화교실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이 오는 7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제6기 식물세밀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기로 하고, 이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식물세밀화는 식물이 가진 특징을 섬세하게 묘사함과 동시에, 작가의 예술적 감각이 가미돼 식물의 아름다움이 돋보이게 하는 예술작

품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전주천에 살고 있는 식물을 주제로 강좌가 진행된다. 전주천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 뿐만 아니라 쉬리, 갈겨니, 참중개 등의 물고기, 기생초, 송엽국, 기린초, 살갈퀴 등의 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전주천에 살고 있는 식

물을 관찰하고 세밀화로 표현, 후대에도 이러한 생태 자원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를 원하는 지역민은 28일부터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nhm.jnu.ac.kr>) 참여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이메일(nhm@jnu.ac.kr)로 신청하면 된다. 15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모든 강좌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